

장애인 음악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 피아노 교수법을 중심으로 -

■
이희승 · 정완규

1. 들어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서 장애인으로 파악되는 인구수는 273만 명이며 이는 인구 10,000명 중 5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상생활(학교)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전보다 덜 차별을 느 낐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 들 중 장애등록을 한 후에 복지 서비스를 한번 이라도 이용해본 비율은 94.8%로 나타났으며 2005년 이후로 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많은 장애인일수록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정책 지원에 있어서 더 만족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도울 것을 당부했다.¹⁾

오늘날 특수 교육 분야 연구의 영향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 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 학생들이 받는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장애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므로 치료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 나 최근에는 많은 연구와 그와 관련되어 회복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장애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다 양한 치료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치료와 교육적 측면에서 음악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음악이 치료의 전문적 측면으로 인식되어 진 것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른다.²⁾ 박경화와 정 광조는 “음악활동이 특수아동에게 미치는 치료적 효과”에서 장애 아동들의 음악치료 결과, 사회적인

1) 조홍식, “제 7차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와 장애인 복지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8 (2015), 4.

2) 황은영, 박소연, “특수교육에서 음악치료 접근법의 연구동향,” 『특수교육연구』 13/1 (2006), 223-245.

능력이 발달하면서 의사소통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자신감과 자존중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³⁾ 최근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가 많았고 실험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들 중 가창활동(22%)과 악기연주(21%)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음악치료가 교실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한 연구나 음악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⁴⁾

이보림은 시각 장애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음악이 주는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그들에게 있어서 음악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율성과 성취감 그리고 소속감에 관한 것인데 음악을 통해 장애를 가진 이들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무언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자율성),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욕구의 충족(성취감),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는 것(소속감)을 기르게 되어 장애아들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성취감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시각 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의 경우 특수교육 안에 속한 음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교육 환경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⁵⁾

연구자는 국내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음악교육 중 피아노 교육에 관한 연구나 사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RISS(www.riss.kr)를 통하여 ‘장애인 피아노 교육’에 관한 자료를 검색한 결과 “시각 장애인 피아노 교육을 위한 점자 학습자료 개발 연구”, “시각 장애인의 피아노 교육에 관한 연구”, “시각 장애아동의 피아노 학습을 위한 교수법 연구: 만 6,7세 아동을 중심으로”를 찾아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관한 연구 세 편을 제외하고는 피아노 교육에 관한 다른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 중에서 피아노 배우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보다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피아노 교육자 및 예비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가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 피아노 교육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애인 피아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박경화, 정광조, “음악활동이 특수아동에게 미치는 치료적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1 (2005), 1-26.

4) 김진희, 김은혜, “장애학생을 위한 음악 관련 연구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2015), 37-38.

5) 이보림, “시각장애인에게 음악하기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영광칸투스 시각장애인 중창단을 중심으로,” 『음악교육공학』 23 (2015), 137-156.

2. 이론적 배경

2.1. 장애인 교육 인식속성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대부분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특수교육 분야를 공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 학생들을 교육할 때 교사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성공적인 학습능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교사들의 장애아 교육 경험과 훈련, 지원되는 자원과 지지의 정도가 장애 학생 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일수록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을 함께 가르칠 때 교실 안에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사실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통합수업(inclusive education)⁶⁾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실 안에서 일반 학생들의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발전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한다. 이를 위해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받는 훈련(training)이 중요한데 특히 이 훈련이 특수교육과 연관이 있을 때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통합수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학급 안에 자폐를 가진 학생이 있을 때 자폐아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은 교사 일수록 장애를 가진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다. 이 외에 장애아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는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전문가 또는 전문 집단으로부터의 도움, 또는 교실 안에서의 도움 즉 보조 교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보조 교사들의 도움이 더 많이 제공될수록 비장애아들이 장애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위에서 언급한 자원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을 경우 선생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⁷⁾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연구를 살펴보면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로 특수교육과 음악교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선생님들의 부족, 특수 교육의 서비스와 음악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화된 학교의 부족, 그리고 음악 교육과 체계화된 교수법을 위한 교육 자료의 부족이었다.⁸⁾ 이와 관련해 2005년부터 2015년에 발표된 음악교육 분야 논문들 중 장

6)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것

7) Isabel Rodriguez, David Saldana and Javier Moreno, "Support, inclusion,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attitudes toward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utism Research and Treatment* (2012), 1-8.

애아교육에 관한 연구는 정신지체 학생의 음악교육 2편, 청각장애 학생의 음악교육 2편, 시각장애 학생의 음악교육 3편으로 총 7편으로 지난 10년간 장애아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⁹⁾ 이제까지 언급한 장애인 교육 인식 속성들 외에도 지원자들의 가능성(availability of a support network), 즉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들이 장애아 교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¹⁰⁾

2.2. 장애인 교육의 국내외 현황

시각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80년 서울 맹학교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사용되는 음악 교과서와 주된 피아노 악보(바이엘, 체르니, 명곡집 등)가 점자로 점역되었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시각 장애인 도서관이나 국립 장애인 도서관에서도 점자 악보를 소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인터넷을 사용하여 곡을 찾아보는 것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점자 악보를 사용하여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피아노 교사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¹¹⁾ 한편 모스(Moss)는 악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시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실제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극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¹²⁾ 이에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악기 학습에 있어 그들만의 방법을 찾도록 격려해 줄 것과 되도록 많은 기술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¹³⁾

이보림은 음악 감상이 시각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만족감’을

8) 김미정, 박휴용, “시각장애 음악전공자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한 음악 교수방법론 탐색,” 『음악교육연구』 42/3 (2013), 176.

9) 김건희, 김은혜, “장애학생을 위한 음악 관련 연구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정서·행동 장애인 구』 31/3 (2015), 21-50.

10) Rodriguez et al., “Support, inclusion,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attitudes toward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6.

11) 박민재, “시각 장애인 피아노 교육을 위한 점자학습 자료 점역 상황 조사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4 (2014), 55-73.

12) Frederick Moss, “Quality of experience in main streaming and full inclusion of blind and visually impaired high school instrumental music students,” (Ph.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2009).

13) Mary Smaligo, “Resources for helping blind music students,” *Music Educators Journal* 85/2 (1998), 23-26.

가질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이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본질적인 욕구 중 학습에 관한 욕구가 비장애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려해 볼 때 음악 감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의 습득은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눈의 사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음악 감상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학습이 가능하여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음악은 그들에게 자율성과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더 해준다.

2016년 특수교육통계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87,950명 중에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70%에 이르고 있다. 통합교육을 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학급 내에서 장애를 가지지 않는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뤄 졸업 후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누리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 따라 통합학습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필요한 학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통합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교육을 실시하게 될 때 교사들이나 학급 내의 일반 학생들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인식이 부족하다면 진정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2003년부터 교육부에서는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시행하고 2016년에 이르러서는 교육 기관뿐 아니라 공공단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급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로는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 노력, 통합 놀이나 통합 캠프 실시, 또래 도우미의 도움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 교육과정 안에 장애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여 일반 학생들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이해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기존의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할 때 비장애인을 대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마음 가짐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¹⁶⁾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수업에 대해서 많은

14) 이보림, “시각장애인에게 음악하기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영광칸투스 시각장애인 중창단을 중심으로-” 『음악교육공학』 23 (2015), 137-156.

15) 한경인, 남혜진, 이현주, 박승희,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 교사의 장애이해교육 실시 경험 -교사들의 장애이해는 이대로 좋은가?” 『특수교육』 15/4 (2016), 5-32.

16) Oliver Mutanga and Melanie Walker, “Towards a disability -inclusive higher education policy through the capabilities approach,”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6/4 (2015), 501-517.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들이 함께 수업을 받는 일이 점점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통합수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학생을 둔 부모는 학교에서 통합수업이 선택사항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도움이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욕 서부지역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1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 학생들이 1년에서 5년 통합수업에 참여하고 난 후에 크게 달라진 점은 언어적인 요인, 즉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었다. 뿐만 아니라 적합한 사회적 행동을 보이면서 또래 집단이나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변화를 가져왔다.¹⁷⁾ 통합수업의 또 다른 예로, 미국의 미네소타 지역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과 수업을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일반 학생들이 학업을 성취하는 정도에 차이점을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통합수업을 받을 때 부모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으며 장애아들은 통합수업에서 긍정적인 학업 성취도를 보일 뿐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상호간의 소통과 우정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짐, 즉 소속감을 경험하는 것을 통합수업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일반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도,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학급 안에 있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학생이 없는 학급과 비교했을 때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비추어볼 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급 안에서 동등하게 학습을 받을 기회를 제공 받고 친구들과의 관계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하지만 국내에서 실시되는 ‘장애이해교육’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통 ‘장애이해교육’이 한 학기에 한 번(일 년에 두 번) 실시되며 이는 형식적인 일회성 교육으로 그칠 수 있으며, 특히 고학년(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면 수동적 교육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예를 들어 그들이 돌발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을 알고 근본적인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

17) Pam Hunt and Lori Goetz, "Research on inclusive educational programs, practices, and outcomes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1/1 (1997), 3-29.

18) Michael Sharpe, Jennifer York and John Knight, "Effects of inclusion on the academic performance of classmates without disabilities: A preliminary study,"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15 (1994), 281-287.

는 교사들조차도 본인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 적절한지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은 이런 문제가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에서 온다고 언급하면서 현실적으로 교사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연수의 기회가 미비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사들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교육을 위해서 대학 학부 과정 중의 관련 학습의 기회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¹⁹⁾

3. 연구 방법 및 결과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장애학생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피아노 지도방법을 찾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피아노 교육자 및 예비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사용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분야 대표적인 연구로 꼽히는 로드리게즈 외의 연구인 “자폐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을 향한 선생님들의 태도”와 헌트와 고에츠의 연구 “심각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통합수업, 실행, 결과”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가 구성되었고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첫 번째 부분은 장애인 교육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전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열네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두 번째 부분은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열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 부분으로는 인구통계학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3개 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19) 한경인 외, “통학학급 교사와 특수 교사의 장애이해교육 실시 경험 -교사들의 장애이해는 이대로 좋은가?” 『특수교육』 15/4 (2016), 5-32.

3.2. 연구 절차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3개의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상대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이들 중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문항이 제공되었다. 연구를 위해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실제로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과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과의 비교를 위해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었고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인식, 경험, 교육, 주위의 도움에 관한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열네 가지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 부분은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열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 부분은 응답자들의 성별, 나이, 재학 여부, 배워온 경력에 관한 것으로 제작하였다.

2017년 3월 설문지를 배부 하였으며 설문지는 각 대학의 피아노 전공 교수에 의해 실시된 후 바로 회수되어 연구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전달되었다. 설문지는 총 227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하게 답변한 26부를 제외한 총 20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일부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한 피아노 전공 학생들을 상대로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지리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설문에 응한 응답자 중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총 150명으로 나타나 이 결과를 모든 교육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3.3. 연구 결과

본 연구를 위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여자는 172명(n=172, 85.6%), 남자는 29명(n=29, 14.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23~27 미만이 91명(n=91, 45.3%)으로 가장 많았고 18~22 미만이 70명(n=70, 34.8%), 28~32 미만이 25명(n=25, 12.4%), 32세 이상이 15명(n=15, 7.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재학여부는 학부 150명(n=150, 7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 재학 45명(n=45, 22.4%), 대학원 졸업자 6명(n=6, 3.0%) 순이었다. 피아노를 공부한 기간은 10~15년 미만이 82명(n=82, 40.8%)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15년 이상은 70명(n=70, 34.8%), 6~10년이 45명(n=45, 22.4%), 1~5년이 4명(n=4, 2.0%)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
성별		
여자	172	85.6
남자	29	14.4
연령		
18 - 22	70	34.8
23 - 27	91	45.3
28 - 32	25	12.4
32세 이상	15	7.5
재학여부		
학부	150	74.6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45	22.4
대학원 졸업	6	3.0
피아노를 공부한 기간		
1 - 5년	4	2.0
6 - 10년	45	22.4
10 - 15년	82	40.8
15년 이상	70	34.8
Total	201	100.0

아래의 (표2)는 평균값(Mean; M),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최빈값(mode, 대표값 중의 하나로 자료의 변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을 나타낸다. 빈도분석을 살펴보면, 장애를 가르치는 일에 관해 들어본 경험은 생각보다 낮게 나타났으나(M=2.62, SD=1.337)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M=3.80, SD=0.950)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M=4.05, SD=0.899) 장애인을 가르치는 일을 교육자로서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였다(M=4.27, SD=0.768). 하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칠 때 특별한 동기가 꼭 필요하다거나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았다(M=3.27, SD=1.019 & M=3.11, SD=1.059). 하지만 대학 교육 수업에서 거의 배우지 못함을 나타내고(M=1.92, SD=1.065) 수업 시간에 다루어져야함을 느끼며(M=3.39, SD=0.953)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재가 필요하다고 여

길 뿐 아니라 사회적인 배려와 특수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M=3.79, SD=0.858 & M=3.99, SD=0.771). 또한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칠 때 부모의 도움과 정기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M=4.16, SD=0.845 & M=3.90, SD=0.827), 수치가 높지는 않았으나 장애인을 가르치는 일에 긍정적인 마음을 보였다(M=3.43, SD=0.993).

(표2) 장애인 교육 인식에 관한 빈도분석

설문문항	평균값 (n=201)	표준편차	최빈값
1.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피아노 연주를 가르치는 일에 관해서 주위에서 들어본 경험이 있다.	2.62	1.337	1
2.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피아노 연주를 가르치는 일에 관해서 들을 때 긍정적인 마음이 든다.	3.80	0.950	4
3. 나는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05	0.899	4
4.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교육자로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4.27	0.768	4
5.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려면 특별한 동기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3.27	1.019	3
6. 나는 장애를 지닌 학생들은 특수한 교육을 받은 교육자들만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11	1.059	4
7.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려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며 대학교육 수업시간에 다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3.39	0.953	4
8.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관한 사례들을 대학 수업시간에 배운 경험이 있다.	1.92	1.065	1
9.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교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3.79	0.858	4
10.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더 많은 배려와 특수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99	0.771	4
11.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긴다.	4.16	0.845	4
12.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90	0.827	4
13.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며 기회가 주어지면 가르치고 싶다.	3.43	0.993	3
14. 나는 장애인 교육의 워크숍이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	3.15	1.035	3

[참고 (1) 중요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상당히 그렇다)]

아래의 (표3)은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얻어낸 결과이다. 설문에 응한 201명 중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총 4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전에 받은 장애아 지도에 대한 교육의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M=1.90, SD=1.085),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동기가 있음도 알 수 없었다(M=2.18, SD=1.202). 하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칠 때 세분화된 교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M=3.71, SD=1.208) 정기적인 전문가의 조언과(M=3.98, SD=1.010)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밝히고(M=4.10, SD=1.141) 보조 선생님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라고 밝혔다(M=3.45, SD=1.062). 앞으로 장애인을 가르칠 기회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수치가 높지 않았지만(M=2.80, SD=1.118) 도움을 주기 원하며(M=3.45, SD=0.980)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M=3.67, SD=1.231).

(표3)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빈도분석

설문문항	평균값 (n=49)	표준편차	최빈값
1.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전에 이에 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1.90	1.085	1
2.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는 데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	2.18	1.202	1
3.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지식과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3.06	1.197	3
4.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교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3.71	1.208	5
5.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여긴다.	3.98	1.010	4
6.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긴다.	4.10	1.141	5
7. 나 이외에 보조 선생님의 도움이 있으면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3.45	1.062	3
8.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고 앞으로 기회가 온다고 해도 선택 못 할 것 같다.	2.80	1.118	3
9.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워크숍이 있으면 참가하고 싶고 내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3.45	0.980	3
10.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보람을 느꼈다.	3.67	1.231	5

[참고 (1) 중요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상당히 그렇다)]

이래의 (표4)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실제로 가르쳐본 집단과 그렇지 않은 두 집단의 비교를 위해서 t-test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의 수치가 'p<0.05'를 나타내면 이는 틀릴 수 있는 확률이 5% 미만이 되어 신뢰할 만 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유의확률은 'p'(possibility)로 나타낸다. t-test를 사용한 결과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긴다(p=0.007)'의 문항과 '나는 장애인 교육의 워크숍이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p=0.042)'의 문항에서 나타난 수치(p<0.05)를 볼 때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집단이 부모와 가족들의 도움이 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며 워크숍에 참여하는 데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4) 경험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상관관계 분석 (t-test)

요인명	경험유무		F-value	t-값(n=49, n=152) (p-값)
	경험 유 (n=49)	경험 무 (n=152)		
주위 경험	평균	3.12	0.052	3.078, 2.925 (0.820)
	표준편차	1.409		
긍정적 마음	평균	3.86	1.397	0.517, 0.486 (0.239)
	표준편차	1.041		
교육의 기회	평균	4.02	1.178	-0.262, -0.235 (0.279)
	표준편차	1.051		
가치	평균	4.12	3.428	-1.591, -1.337 (0.066)
	표준편차	0.971		
특별한 동기	평균	3.31	0.794	0.295, 0.283 (0.374)
	표준편차	1.084		
교육을 받은자들	평균	3.02	0.845	-0.714, -0.728 (0.359)
	표준편차	1.031		
대학 교육수업	평균	3.55	0.077	1.379, 1.372 (0.781)
	표준편차	0.959		
배운 경험	평균	2.04	0.028	0.910, 0.937 (0.867)
	표준편차	1.020		
교재 필요	평균	3.86	1.710	0.619, 0.669 (0.193)
	표준편차	0.764		
사회적 배려	평균	3.98	0.031	-0.057, -0.056 (0.861)
	표준편차	0.803		
가족의 도움	평균	4.10	7.539	-0.543, -0.467 (0.007)**
	표준편차	1.046		

전문가의 조언	평균	3.92	3.89	2.527	0.222, 0.201 (0.113)
	표준편차	0.954	0.785		
기회 수락 여부	평균	3.61	3.37	0.868	1.499, 1.414 (0.353)
	표준편차	1.077	0.961		
워크숍	평균	3.43	3.07	4.207	2.153, 2.052 (0.042)*
	표준편차	1.099	1.001		

[참고 (1) *p<0.05, **p<0.01]

위의 (표4)를 살펴보면, (표1)의 각 문항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 문항인 ‘주위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피아노 연주를 가르치는 일에 관해서 주위에서 들 어본 경험이 있다’의 평균값(M=3.12, 2.46)을 볼 때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쳐본 응답자가 조금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피아노 연주를 가르치는 일에 관해서 들을 때 긍정적인 마음이 든다’의 문항의 평균값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M=3.86, 3.78). 또한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음악 연주를 하는 것을 듣거나 본 경험이 있고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M=4.02, 4.06)’,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교육자로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M=4.12, 4.32)’,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려면 특별한 동기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M=3.31, 3.26)’, ‘나는 장애를 지닌 학생들은 특수한 교육을 받은 교육자들만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M=3.02, 3.14)’의 문항들은 실제 가르친 경험유무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려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며 이는 대학 교육 수업시간에 다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M=3.55, 3.34)’의 문항과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전문화된 교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M=3.86, 3.77)’의 문항을 볼 때, 근소한 차이지만 실제로 경험한 응답자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느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더 많은 배려와 특수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M=3.98, 3.99)’의 문항, ‘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긴다(M=4.10, 4.18)’의 문항, ‘나는 장애 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M=3.92, 3.89)’의 문항은 가르쳐본 경험유무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마지막 두 문항인 ‘나는 장애 를 가진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며 기회가 주어지면 가르치고 싶다(M=3.61, 3.37)’의 문항과 ‘나는 장애인 교육의 워크숍이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M=3.43, 3.07)’ 문항에서 근소한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실제 경험한 응답자가 앞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워크숍 참여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나가면서

본 연구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n=201)으로 장애인 피아노 교육 인식조사를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인식조사와 더불어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쳐본 응답자들과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의 각 문항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통합교육을 살펴볼 때, 장애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습효과 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게 될 때 다소의 도움이 되 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있는 일부 대학 내에 피아노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하였고 모두 201명(여자 172명, 남자 2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저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설문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주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장애인 피아노 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위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관해 들어본 경험은 높지 않았으나 장애인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 피아노 교육이 교육자로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칠 때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 교육을 받은 자들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대학 교육 수업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음을 밝히고 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족들의 도움과 정기적인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설문에 대한 결과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총 201명 중 장애인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모두 4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전에 받은 전문 교육의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가족들의 절대적인 도움과 전문가의 조언,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본인뿐 아니라 보조 선생님의 역할이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돕기 원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표2)

의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주위에서 장애인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접해왔음을 알 수 있었고, 장애인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 든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에 대한 것이나 장애인을 가르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지는 것, 특별한 동기의 여부, 특수한 교육을 받은 자만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문항은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학 교육 수업시간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세분화된 교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실제 지도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더 필요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가족들의 절대적인 도움과 정기적인 전문가의 조언의 필요는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고 워크숍의 참여와 장애인을 앞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지도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수치가 높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두 집단의 비교 인식을 위해서 t-test를 사용한 결과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문항과 워크숍이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는 문항의 수치($p < 0.05$)를 살펴볼 때,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장애인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이 두 문항들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로 볼 때, 대부분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여기고 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교육자로서 가치 있게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고 기회가 주어지면 가르치고 싶은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받은 교육이 거의 없음을 드러내고 이것이 대학 교육 수업 안에서 다루어져야함을 밝히고 세분화된 교재의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피아노 교육자들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직시하고 보다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 가르치는 데 기회를 열어놓아야 한다. 이를 계기로 현재 피아노 교육자 및 예비 교육자들이 피아노 지도를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돕는 일에 애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대학이나 사회에서 장애인 피아노 교육에 관한 교육이나 세미나 등이 활성화 되어야하며 아울러 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전문화된 학습교재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검색어

장애인 피아노 교육, 장애인 음악교육, 장애인 통합교육

참고문헌

- 김건희, 김은혜. “장애학생을 위한 음악 관련 연구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2015): 21-50.
- 김미정, 박휴용. “시각장애 음악전공자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한 음악 교수방법론 탐색.” 『음악교육연구』 42/3 (2013): 151-182.
- 박경화, 정광조. “음악활동이 특수아동에게 미치는 치료적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1 (2005): 1-26.
- 박민재. “시각 장애인 피아노 교육을 위한 점자학습 자료 점역 상황 조사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4 (2014): 55-73.
- 이보림. “시각장애인에게 음악하기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영광칸투스 시각장애인 중창단’을 중심으로.” 『음악교육공학』 23 (2015): 137-156.
- 조홍식. “제 7차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와 장애인 복지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8 (2015): 2-4.
- 한경인, 남혜진, 이현주, 박승희.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 교사의 장애이해교육 실시 경험 -교사들의 장애이해는 이대로 좋은가?” 『특수교육』 15/4 (2016): 5-32.
- 황은영, 박소연. “특수교육에서 음악치료 접근법의 연구동향.” 『특수교육연구』 13/1 (2006): 223-245.
- Gibson, James.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1979.
- Hunt, Pam and Lori Goetz. “Research on inclusive educational programs, practices, and outcomes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1/1 (1997): 3-29.
- Moss, Frederick. “Quality of experience in main streaming and full inclusion of blind and visually impaired high school instrumental music students.” Ph. 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2009.
- Mutanga, Oliver and Melanie Walker. “Towards a disability -inclusive higher education policy through the capabilities approach.”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6/4 (2015): 501-517.

- Rodriguez, Isabel, David Saldana, and Javier Moreno. "Support, inclusion,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attitudes toward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utism Research and Treatment* (2012): 1-8.
- Salisbury, Christine, Mary Palombaro, and Tia Hollowood. "On the nature and change of an inclusive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8 (1993): 75-84.
- Sharpe, Michael, Jennifer York, and John Knight. "Effects of inclusion on the academic performance of classmates without disabilities: A preliminary study."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15 (1994): 281-287.
- Smaligo, Mary. "Resources for helping blind music students." *Music Educators Journal* 85/2 (1998): 23-26.
- Veck, Wayne. "Diability and inclusive education in times of austeri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35/5 (2014): 777-799.

A Study on Piano Education: Recognition for Disabled People

Lee, Heeseung · Chung, Wan 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iano education for disabled people. A survey was conducted in March 2017 and participants included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iano performance in Seoul and Kyunggi-do area(n=201). According to survey results, most students think that more opportunity should be given to disabled people. They also think that educators would find value in teaching piano to disabled people. Mostly, students have similar opinions whether or not they have previous experience. A t-test was conducted to compare between students who had previous teaching experience and students who did not have previous teaching experience. Results show that students who had previous teaching experience were in constant need of family members' help. They were also willing to participate in workshops for better teaching disabled people. This study as well as previous research from other studies show general agreement about educators and teaching piano to disabled people. They reveal how educators must set a good example by applying today's changes on the recognition of disabled people. The consensus is that educators should gain and employ better ideas for teaching disabled people and teaching them effectively.

장애인 음악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 피아노 교수법을 중심으로 -

이희승 · 정완규

본 연구는 장애인 피아노 교육 인식을 알아보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설문지가 제작되었고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은 교육자로서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이전의 장애인 지도경험이 있는 응답자들과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두 그룹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t-test를 시행한 결과 두 가지 문항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장애학생 지도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첫째로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로는 역시 장애학생 지도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장애인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워크숍의 참여의지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피아노 교육 분야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인지하고 효과적인 교수법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논문투고일자: 2017년 4월 29일

심사일자: 2017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5월 31일